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6월 1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(2110-5331), 김열규 사무관(5334), 이디도 사무관(5335)

산업부, 금융기관과 함께 수출현장으로!

- 김재홍 차관, 수출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차관은 6.11(화) 무역보험공사·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및 국민·외환·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과 함께 무역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현장 순회 간담회를 개최

< 수출현장 순회 간담회 개최 개요 >

◇ 일시/장소 : '13.6.11(수) 10:00~18:20 / 인천 수출산단, 평택항 등
◇ 주요 참석자 : 산업부 김재홍 차관, 무역보험공사 조계륭 사장, 수출입은행 홍영표 부행장, KOTRA 우기훈 부사장, 중진공 최덕영 기업금융처장, 기업은행 시석중 본부장, 국민은행 정순일 본부장, 외환은행 이종욱 본부장 등
◇ 행사내용 : ①인천지역 수출업체 방문((주)자누스코리아), ②인천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(산단공), ③평택항 수출현장방문(기아車) ④중소형 플랜트기업 간담회(Kotra)

○ 이번 지역순회 간담회는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(5.1일)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추가지원 대책*을 차질없이 집행하고,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 및 금융애로를 점검·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,

* 무역금융 추가지원(총 10.9조원) : 환변동보험(1.3조원), 수출중소·중견기업 지원(6.3조원), 중소형 해외건설·플랜트(1조원),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(2.3조원)

○ 무역보험기금 특별출연*(5.20일)에 이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

* 기업·외환·국민은행이 각 1,000억원씩 총 3,000억원을 출연하여 무역금융 수요가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, 중소형 플랜트, 조선기자재 등에 5조원 추가 지원

【인천 국가산단 방문】

□ 김재홍 차관 등 현장방문단은 주안산업단지 내 중소 수출기업을 방문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

○ (주)자누스코리아는 수출의 90% 이상을 일본으로 하는 기업으로 최근 엔저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요청

○ 이에 무보·중진공 등 유관기관에서는 무역금융 특별지원 대책 및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실시를 안내

- **(무보)** 금융기관 특별출연(3,000억원)을 통한 무역금융(5조원) 활용시 보험료 및 한도 우대, 3개 은행에서 금리 등 우대

* (무보) 보증료 지원 0.1% 할인, 1년간 2천만원 한도내 보험료 70% 지원 등
* (은행) 금리 0.5~0.7% 할인, 환가료(네고 수수료) 0.3~1.5% 할인 등

- **(중진공)** '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'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, 환율 하락으로 경영애로시 원금상환 유예 등

□ 이어 개최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는 무역보험을 활용한 엔저 대응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점검

○ 채산성 악화 등 엔저에 따른 피해를 수출선 다변화, 환변동보험 활용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청취

< 엔저 대응 성공 사례 >

① 수출이 일본에 편중(100%)됨에 따라 엔저에 따른 환차손 등 손실 발생
➡ 무보 Trade FC의 지원을 통해 미국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하여 對일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수출실적 시현 예상(I사, 무선통신기기)

* 무보 Trade FC(Financial Consultant) : 무역보험 상담수준을 벗어나 수입자, 시장분석, 수출관련 지원제도 및 수출금융 등 무역과 관련한 종합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

② 일본 바이어와의 외상 거래로 인하여 엔화 하락에 따른 환율 위험에 노출
➡ 수출실적의 약 50%를 환변동보험을 통해 헷지함에 따라 엔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적극적인 對日 수출로 수출실적 전년대비 30%↑(D사, 기계)

○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 어려움·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의 애로를 제기하였으며, KOTRA 등 참석자들이 관련 지원책을 안내하는 등 애로 해소방안을 활발히 논의

< 인천지역 간담회 애로 및 해소 사례 >

① FTA 원산지 증명, 원가산출 내역 작성에 대한 지원 필요
➡ 24시간 상담전화(1566-5114) 활용하거나 관세사, 회계사 등 전문가가 직접 활용과정을 지원하는 'OK FTA 컨설팅 사업'을 활용

② 중국기업 등 해외정보제공 확대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
➡ KOTRA 국가정보 DB 개방하여 제공 중이며, 중국기업 등 특정정보는 해외시장조사 대행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

○ 김재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엔저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이행을 위한 자금사정도 어렵다고 우려하고,

- 추가 지원되는 무역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엔저 극복 및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

【평택항 자동차 선적부두 방문】

□ 현장방문단은 인천지역 간담회를 마치고 평택항 기아자동차 선적부두를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

○ 자동차는 우리 수출의 8.6%('12년 기준)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산업이나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아 최근 엔低에 따른 수출피해가 우려

* 자동차 수출증가율(전년동기대비 %) : ('12년) 4.2 → ('13.1~5월) △1.5

○ 김재홍 차관은 수출 최전선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 등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엔低 등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기 위하여 수출 확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

【중소형 플랜트 업계 간담회】

□ 이후 현장방문단은 서울로 이동하여 중소형 플랜트 업체 15개가 참여한 가운데 플랜트 수주 확대방안을 논의

○ 참석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였고, 이에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지원한도 확대, 제작자금 지원 등 최근 마련된 플랜트 수주 지원 대책을 참석 기업들에게 안내

< 중소형 플랜트 간담회 애로 및 해소 사례 >

①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, 사업성에 기반한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필요
➡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, 평과결과가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

* 심사기준 : (기존) 자기자본 + 매출액 중심 → (개선) 공사 수행능력 + 수익률 위주

②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 대출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으로 유동성 지원 필요
➡ 일시적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거로 수출이행용 제작자금을 업체당 최대 30억원 지원

② 플랜트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지원책 마련 필요
➡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연간 2,50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는 중이며, 향후 산업체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전문인력 공급 늘릴 계획

□ 김재홍 차관은 중소형플랜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금번 무역금융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주길 당부하고,

○ 향후에도 수출중소기업·중소형 플랜트 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금융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디도 사무관(☎ 02-2110-53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